



17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16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16강전 공주고와 장충고의 경기. 2회말 장충고 공격에서 2사 후 3루 주자 김건효가 2번 타자 고대환 타석때 홈 스틸을 성공하고 있다.

/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장충 8강... “2년전 우승 영광 되찾자”



김건효 3루타 이어 홈 스틸 승리 수훈갑 광주동성·선린 인터넷고도 8강 합류

동성고 8-3 순천효천고

멀티플레이어 유경국이 동성고의 8강을 견인했다.

광주 동성고가 17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16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셋째 날 경기에서 순천효천고를 8-3으로 꺾고 8강에 합류했다. 장충고와 선린인터넷고도 각각 공주고와 배명고를 꺾고 8강에 안착했다.

3점 홈런을 포함 4개의 안타로 나홀로 4타점을 기록한 동성고 유경국은 4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까지 챙기며 ‘원랜쇼’를 펼쳤다.

3회 양팀의 타선이 폭발했다. 3회초 2사

1·2루, 타석에 들어선 3번 유경국이 국내야구 최장신(207cm) 투수 장민익의 초구를 받아 우측담장을 넘기며 3-0을 만들었다.

심의정의 2루타와 문동욱의 적시타로 1점을 보탠 동성고는 3회에만 4점을 만들었다.

3회말 이번에는 효천고의 주도성이 2사 1루에서 좌측 외야 관중석 상단을 맞추는 급격한 홈런을 터트리며 4-2로 쫓아갔다.

4회말 무사 3루의 위기상황에서 동성고 지명타자 유경국이 투수로 변신했다.

폭투로 3루 주자를 홈으로 들여보내긴 했지만 유경국은 4이닝을 안타없이 4사사구 3탈삼진으로 막으며 승리투수가 됐다.

7회 밀어내기로 2점을 뽑은 동성고는 8회에도 2점을 보태며 8-3으로 승리했다.

공주고 3-5 장충고

2007년 무등기 우승팀 장충고가 공주고를 5-3으로 누르고 8강에 진출했다.

경기 시작과 함께 장충고의 김건효가 유격수 에러로 출루했다. 도루에 성공한 김건효는 3번 정성민의 적시타 때 홈을 밟으며 팀의 첫 득점을 기록했다.

2회에는 멋진 홈 스틸이 나왔다. 김건효가 2사 1루에서 우중간을 꿰뚫는 3루타로 타점을 기록한 뒤, 홈스틸에 성공하며 2-0을 만들었다.

4회초 공주고에게 절호의 득점 기회가 찾아왔다. 유격수 송구 실책에 이어 몸에 맞는 볼이 연속해서 나오면서 무사 만루. 짧은 우익수 플레이가 나오면서 주자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원 아웃. 오석호의 2루수 앞 땅볼 때 3루 주자가 홈을 밟으며 1점을 따라갔지만 더 이상의 추가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

6회 공주고의 수비가 아쉬웠다. 2루수 실책으로 무사 2루. 보내기 번트를 처리하던 투수 안승만이 3루로 송구했지만 타자·주자 모두 세이프가 됐고, 최용준의 2타점 2루타가 터지면서 점수는 5-1까지 벌어졌다.

공주고는 9회 고세진의 2타점 3루타로 뒤늦게 추격에 나섰지만 5-3 장충고의 승리로 끝났다.

오늘의 무등기 야구

- 16강전
- ▲ 부천고-부산고 (10시)
- ▲ 개성고-군산상고 (13시)
- ▲ 청원고-경기고 (15시30분)
- ▲ 아탑고-인천고 (18시)

선린인터넷고 5-1 배명고

집중력에서 앞선 선린인터넷고가 배명고를 5-1로 제압하고 8강에 올랐다.

선취점은 배명고의 뒤편이었다. 1회말 1사 1·2루에서 문상철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배명고가 1-0으로 앞서 나갔다.

5회까지 이어지던 1점의 승부는 6회 3개의 사사구에 균형이 깨졌다.

5회초 배명고 선발 허승철이 1사에서 연달아 몸에 맞는 볼 두 개를 내주면서 흔들렸다. 선린인터넷고의 3번 맹준혁 마저 볼넷을 골라내면서 1사 만루. 김재현으로 마운드가 교체됐지만 김경화의 2타점 적시타가 터지면서 승부가 뒤집혔다.

선린인터넷고는 7회 1개의 2루타를 포함 5개의 안타를 몰아친 끝에 3점을 더해 5-1까지 달아나며 승부를 결정지었다.

배명고는 이날 11개의 안타를 터트리기도 1점을 뽑아내는 데 그치며 선린인터넷고에 8강 티켓을 내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무등기 그라운드 지켜보는 KIA 조찬관 스카우터

“기술·파워는 두번째 기준 근성 갖춘 선수에 눈길 간다”

“야구의 기술이나 파워는 열심히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지만 정신력은 어릴 때부터 잘 가다듬어야 프로에 와서도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제 16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에서 우수선수 발굴을 위해 광주 무등경기장을 지키고 있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조찬관(45) 스카우터 팀장은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자신만의 야구를 할 수 있는 목표의식이 분명한 선수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조 팀장은 광주출신으로 광주 학강초 등-진흥중-목포영흥고-인천체육전문대를 거쳐 프로야구 해태(KIA 전신)에서 외야수로 활약했다. 은퇴 후 해태 2군 매니저를 거쳐 지난 1997년부터 KIA에서 스카우터를 맡고 있다.

조 팀장은 대회 우수선수로 이 지역 출신 중에서는 동성고 투수 유경국(18·3년), 진흥고 투수 김정훈(18·3년), 순천효천고 투수 장민익(18·3년) 선수를 눈여겨 보고 있다. 그는 스피드와 제구력을 갖춘 투수를 자질 있는 선수로 꼽고 있으며, 타자의 경우 최근 프로야구 경향을 비춰 주력과 센스에 초점을 맞추고 지켜보고 있다. WBC의 경우를 보더라도 한국야구는 빠르고 세밀한 작전 야구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팀장은 “자신에게 잘 맞는 기술이 어떤 것인지 빨리 깨달아 습득해야 한다. 배팅이나 수비에 주력할 것인지 구종 개발에 집중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무등기 대회를 거쳐 스타가 된 KIA의 윤석민이나 신용운 등 선배들이 많은 만큼 좋은 플레이로 스카우터들의 눈에 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필성기자 kps@kwangju.co.kr

/사진=위직량기자 jwji@kwangju.co.kr

동성 VS 진흥 ‘광주 더비’

내일 8강서 맞대결

이번 무등기에는 동성고·진흥고·효천고·군산상고가 ‘호남야구’의 자존심을 걸고 출격했다.

네 팀은 서울팀이 독주하고 있는 올 시즌 고교야구의 판도를 뒤바꾸기 위해 야심찬 출발을 했지만, 군산상고를 제외 한 세 팀이 대회 초반부터 맞붙게 되면서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17일 동성고와 효천고가 먼저 ‘전라도 더비’를 치렀다.

이날 성균관대 선후배 사이인 양팀의 사령탑 윤여국 감독과 서창기 감독은 초반 한치 양보 없는 승부를 벌였다.

전라도 팀의 빅 매치가 열리면서 동성고와 성균관대를 접합한 장제근 전 히어로즈 코치와 지금은 청원고를 이끌고 있는 최인수 전 동성고 감독도 경기장을 찾아 양팀의 승부를 유심히 지켜봤다.

3회 홈런을 하나씩 주고 받은 접전을 벌인 양팀의 팽팽한 승부는 순천 효천고의 마운드에 먼저 무너지면서 8-3 동성

고의 승리로 끝났다.

전라도 더비 1차전에서 승리한 동성고는 19일 전라도 더비 2차전을 치러야 한다. 상대는 마산고를 7회 10-1 월드 승으로 제압하고 8강에 오른 ‘광주 라이벌’ 진흥고다.

부상에서 돌아온 에이스 김정훈을 앞세운 진흥고는 마산고와의 첫 경기에서 다이내마이트 타선을 가동시키며 무서운 저력을 과시했다.

대회 첫 홈런을 기록했던 김도현과 3루타 하나를 포함 4타수 3안타 4타점의 절정의 타격각을 선보인 포수 최용제 등 묵직한 중심타선이 진흥고를 대표한다.

투·타에서 돋보이는 유경국과 하위타선에서 만점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성규 등 짜임새 있는 동성고의 전력도 만만치 않다.

무등기를 품기 위해 8강 길목에서 만난 광주 두 팀.

피할 수 없는 승부에서 살아남은 광주 팀의 승자가 장충고-배명고 두 서울팀의 승자와 준결승에서 맞붙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4이닝 쾌투·홈런포함 4안타 ‘멀티플레이어’



광주 동성고 유경국

“마운드와 타석에 서는 것 모두 재미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성적으로 팀 승리를 이끌어서 기쁩니다.”

17일 효천고와의 경기에서 지명 타자로 선발 출전한 동성고 유경국은 3회 3점 홈런을 뽑아낸 데 이어, 4이닝 무실점의 투구로 승을 챙기며 팀 8강의 수훈갑이 됐다.

이날 4회 무사 3루에서 마운드를 넘겨받

은 유경국은 폭투로 1점을 내줬지만, 이후 안타 없이 4이닝을 4사사구 3탈삼진으로 막았다.

유경국은 “처음에 너무 긴장해 폭투를 기록했지만 그동안 수비 연습을 많이 했던 만큼 야수들을 믿고 편하게 공을 던질 수 있었다”고 동료들에게 승리의 공을 돌렸다.

지난 3월 전국대회 첫 선발 등판이었던 황금사자에서 6이닝 노히트 노루를 받았던 유경국은 140km초반대의 직구와 체인지업, 슬라이더, 반포크볼을 구사하는 우완. 하지만 타석에서는 왼쪽을 지키는 우투좌타다.

초등학교 때 좌타자로 전향한 ‘만들어진

좌타자’지만 파워는 좋다.

이날 1회 첫 타석에서 우전 안타로 출루했던 유경국은 3회 2사 1·2루에서는 초구를 노려 3점 홈런을 만들어 냈다.

유경국은 “변화구를 노리고 타석에 들어섰는데 그게 적중했다”며 “투·타에서 만족스러운 성적을 내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5타수 4안타 4타점의 매서운 방망이를 선보인 유경국은 “무등기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한만큼 우승에 도전하겠다”며 “청소년 국가 대표에도 욕심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